

허리 휘는 밥상물가...광주 상승폭 전국 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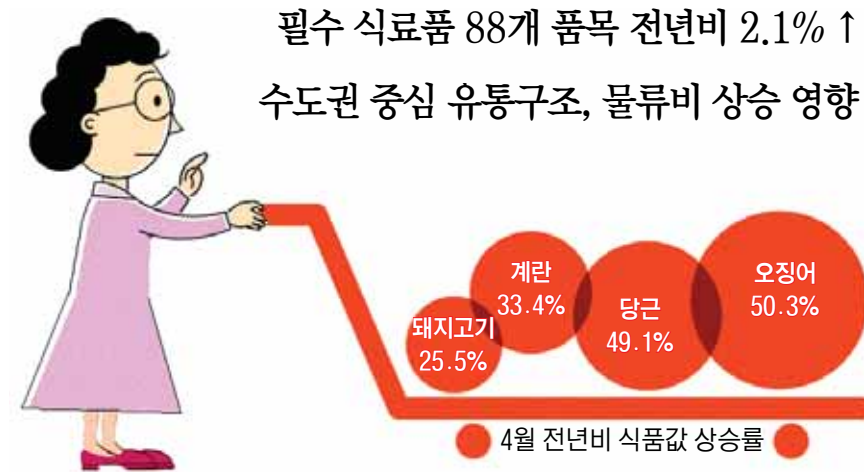
광주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 품목 중 라면, 달걀, 상추 등 소비자 물가들이 일상에서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과 음료 등을 따로 모아 보니 물가지수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4배가량 높았다.

소비자들의 생활에서 즐겨 구입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 주 구입품을 따로 모아보니, 전체 물가상승 수치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 높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광주지역 식료품 등의 물가 상승폭이 큰 것은 수도권 중심의 유통 구조 탓에 물류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나의 물가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식료품 소비자 물가 품목 460개 중 통상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88개 품목을 선택해 소비자 물가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 지난 4월 물가지수는 103.66이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상승한 수치다.

선택된 품목은 쌀, 보리, 밀가루, 고등어(이상 하락),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고구마, 콩나물, 버섯, 오이, 고추(이상



상승) 등 주부들이 밥상에 자주 올리는 식료품이다.

비교적 소비자 물가 상승이 덜한 나머지 품목의 광주지역 물가 상승이 1.0%에 그쳤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품목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의 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또 광주지역의 체감 물가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4배 이상이었다. 같은 프로그램

으로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88개 품목의 전국 소비자 물가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물가지수는 102.99이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 상승하는데 그쳤다.

광주지역 소비자들이 즐겨 구입하는 필수 식료품의 물가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광주지역의 필수 식료품 물가 상승은 수도권을 거쳐 전국으로 배송되는 기형적인 유통망과 본격적인 날들이철을 맞아 삼겹살 가격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한 유통 전문가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도권 중간 도매상들이 사들인 뒤 다시 전국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오히려 수도권보다 비싼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4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징어 가격이 50.3%, 갈치 가격은 22.1%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2~3월 하락세를 보이던 돼지고기(삼겹살)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 올랐으며 이 밖에도 달걀(49.1%), 계란(33.4%), 쌀(2.4%)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시금치(-65.3%), 오이(-45.0%), 참조기(-44.4%), 배추(-28.7%) 가격은 작년보다 일제히 내렸다.

전월과 비교하면 돼지고기(10.7%), 닭고기(5.6%) 가격은 올랐지만, 오이(-23.3%), 호박(-20.5%), 감자(-17.0%), 시금치(-16.3%), 대파(-13.1%), 배추(-12.4%), 당근(-10.9%)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2295.33 (+4.68) |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1) |
| ↓ 코스닥 639.11 (-6.27) | ↓ 환율 (USD) 1116.00원 (-7.60) |

19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인대회...동반성장 포럼·유공자 포상 등 다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임경준)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5월15일~19일)을 맞아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16일 밝혔다.

17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이 개최된다.

18일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회의실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립 추

진대회 설명회가 열린다. 이어 19일에는 장흥 역불산에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지원기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하는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한마음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또 내달 14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별관 2층에서 '광주 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이 밖에 6월 20일 오전 9시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 GMD 매칭 수출상담회'가 준비되어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랩 2기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오는 6월10일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및 소프트웨어(SW) 분야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광주 SW창업랩 2기'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ICT·SW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팀과 2017년도에 기창업한 ICT스타트업이다. 광주SW창업랩 사업은 초기 아이디어 수준이거나 수익 모델이 부족한 아이디어더라도 창업에 대한 열정이 높은 예비창업팀을 4~5개월간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모델

로 빠르게 지원한다. 린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시제품)으로 제작한 뒤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제품개선을 반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스타트업 모델이다.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7 광주SW창업랩 사업은 ICT 및 SW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팀단위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작비를 팀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프로그램이다. 문의 062-610-2433.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해양도시가스 선진안전문화 정착 결의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해양도시가스(대표 김형순)는 최근 회사 대강당에서 창립 35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 참석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새로운 비전 선포와 선진안전문화정착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행사는 모범사원 및 장기근속사원, 개선·사고예방활동제안 우수사원, 금연을 리니성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와인 소믈리에 권홍식 대표의 와인 특별강연 및 시음회, 아시아로망스프리트 4중주 연주단의 클래식 연주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해양도시가스 김형순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개선활동을 실행하고 있

으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획기적인 Value Chain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해양도시가스가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 'Value No.1 Energy Partner by "Hi! Pro200"'을 발표하고 비전 달성을 통해 기업가치를 최고로 인정받는 선도기업,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일을 통해 자신의 미래와 회사의 목표를 실현하는 희망의 기업,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



삼성전자 美 UHD 모니터 시장 1위

4분기 연속...판매 전년비 164%↑

삼성전자가 미국 UHD 모니터 시장에서 4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6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전자 UHD 모니터<사진>가 지난 1분기 미국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점유율 31.6%를 달성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분기 UHD 모니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이번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UHD 모니터 전체 판매 수량은 작년 대비 약 164%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24인치와 28인치 UE590, 28인치와 32인치 UE850,

32인치 UD970 등 총 5종의 UHD 모니터를 판매하고 있다. 이 중 UE590 모니터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출시 이후 매주 2000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약 1만대 판매됐고 아마존 프라임데이 날에는 10시간만에 2500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학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미국 시장에서 고해상도, 고화질의 모니터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모니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UHD 모니터는 다양한 기업과 정부 등의 시장에서도 판매가 대폭 증가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외국인 200만명 시대...세금도 '쑥'

국내체류 외국인 10년 새 종합소득세 5.6배

국내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며 이들이 내는 세금도 10년 전과 견줘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189만9000명으로 2005년(74만7000명)보다 2.5배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국내 총인구(5143만명)의 3.7%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더 늘어 지난해 말 204만9000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내는 세금도 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1029명, 신고 세수는 3781억원으로 2005년(8691명, 678억원)보다 신고인원은 7배, 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대상인 연말정산으로 봐도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세수는 증가세다. 2015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6947억원으로 10년 전(1742억원)보다 4배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10-8628-0482